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함께 지어져가는 우리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주 현 후 제5주 】

인도 : 이재훈 목사

전 주	반주자
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	다 함께
예배로의 부름	인도자
경배의 찬송 32. 만유의 주재	다 함께
공동기도	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온기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하루하루가 참 고단했습니다.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. 주님, 이제 용기를 내어 하늘을 봅니다.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.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자아의 감옥에 갇혔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.

주님,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사라졌습니다. 모두가 앞만 보며 달리느라 편하게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. 주님, 굳어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. 따스한 봄 햇살과 숲의 고요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누군가 곁에 와 잠시 쉴 수 있고, 길을 잃은 이가 다가와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간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너의 있음이 나의 있음의 이유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참회의 침묵기도	다 함께
위로의 말씀 사 58:10	인도자
교 독 문 11. 시편 17편	다 함께
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	다 함께
찬 양 425.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	다 함께
성경봉독 창 19장 27~29절	인도자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

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

봉 독 자

다 함 께

특 송	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	청파 찬양대
말 씀	어른이 된다는 것	김기석 목사
거둬의 기도		다 함께
찬 양	315.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	다 함께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평화의 인사		다 함께
보냄의 말씀		다 함께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. 마음을 주님께 두십시오.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. 곁에 있는 이들의 설 땅이 되십시오.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.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깊고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.


다 함 께 : 아멘.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좋을 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이제는 깨닫습니다. 주님의 은총과 치열한 성찰을 통해 참 어른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. 한마디의 말보다 나의 존재를 선물로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. 주님,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과 평화의 향기를 풍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. 아멘.


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축 복		김기석 목사

다음주

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재훈

 청파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파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